

한국판 Maudsley 강박행동질문지와 Padua 강박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민 병 배[†] · 원 호 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Maudsley 강박행동질문지(MOCI)와 한국판 Padua 강박질문지(PI)를 각각 675명과 244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이 두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였다. PI는 MOCI에 비해 내적 일관성 및 시간적 안정성이 더 우수하고, 요인 구조가 더 안정적이며, 측정하는 강박 현상의 범위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OCI는 PI에 비해 변별타당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두 질문지의 하위요인들의 수렴/변별타당도가 일부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질문지의 주성분분석에서 확인된 '의심' 요인 및 '심성통제실패' 요인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박장애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장애이다. DSM-IV(1994)에 따르면, 강박사고(obsession)나 강박행동(compulsion)의 증상이 있을 때 강박장애의 진단이 내려진다. 강박사고란 개인에게 심한 불안과 불편감을 야기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혹은 심상으로서 개인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의식에 침투해 오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침투적인 사고는 대부분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며 자아이질적인 것으로 지각되는데, 개인은 이러한 침투적 사고를 무시 혹은 억제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를 중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된다. 강박행동이란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혹은 경직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반복적인 외현적 행동(손씻기, 정돈, 확인 등) 혹은 내현적 행동(기도, 수자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이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민 병 배 /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1-7 다지빌딩 4층 135-120 / Fax: 02-511-4427 / E-mail: minbb@proms.snu.ac.kr

안이나 불편감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혹은 어떤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DSM-IV, 1994). 십여년 전만 해도, 강박장애에 대한 역학 자료들은 환자 표집에만 기초하여 추정되었다. 정신과 입원환자 집단 내에서 강박장애의 유병율이 0.5%-4%라는 결과에 기초하여, 일반 전집 내에서의 강박장애의 유병율은 0.05%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강박장애의 '비밀스런 속성'과 강박장애 환자들이 치료장면에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같은 수치는 과소추정된 것이다(Rasmussen & Tsuang, 1986). 최근에 일반 전집을 대상으로 연구한 7개의 역학 자료에 따르면, 강박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0.7%에서 2.5%에 이른다. 강박장애는 과거에 알려진 바와 달리 유병율이 높은 심리장애로서, 다른 불안장애 및 기분 장애와의 공존율이 높은 장애이다.

강박 장애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1) 임상적 면접; (2) 행동 관찰(타인에 의한 관찰, 혹은 자기 감찰); (3) 임상가의 면접에 의한 평정 척도(예를 들면,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Goodman, Price, Rasmussen, Mazure, Fleishmann, Hill, Heninger, & Charney, 1989); (4) 자기보고 질문지. 이 중에서도 특히 자기보고질문지들이, 경제성과 객관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개발되어 임상 장면과 연구 장면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중 일부는 강박 행동만을 평가하고(예를 들면, Compulsive Activity Checklist: Marks, Hallam, Connolly, & Philpott, 1977), 일부는 강박 사고만을 평가한다(예를 들면, Cognitive Intrusions Questionnaire: Freeston, Ladouceur, Thibodeau, & Gagnon, 1992). 그러나 강박 장애 환자들의 대부분은 강박행동 증상과 강박사고 증상을 다 보이기 때문에(de Silva & Rachman, 1992), 둘 다를 포함하는 질문지가 일반적인 목적에서 더 유용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어 온 질문지는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MOCI: Hodgson & Rachman, 1977)와 Leyton Obsessional Inventory(LOI: Cooper, 1970; 한국판 LOI는 이민규, 1987)이며, 보다 최근에

는 Padua Inventory(PI: Sanavio, 1988)가 개발되어 좋은 심리측정적 속성과 안정된 요인 구조가 입증되었고 점차 사용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MOCI와 한국판 PI를 개발하여, 이 두 질문지의 신뢰도, 요인구조 및 타당도를 밝히고 두 질문지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강박장애는 근래에 와서 점차로 더 많은 양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론적 분석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애이다.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더 많은 수의 연구들은 비임상 강박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비임상집단 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방법론을 취하게 된다. 그 하나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 평가도구 상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Burns, Formea, Keortge, & Sternberger, 1995).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Norton, Cox, Asmundson과 Maser(1995)는 1980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 연구 간행물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불안장애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 비임상 강박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강박장애의 기초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강박증상의 구조, 강박장애와 관련된 정신병리, 성격과 심리적 특성, 인지적 역기능, 통제 책략 등을 밝히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비임상 강박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개관은 Gibbs(1996)를 보라). 비임상 강박집단의 연구에서 자기보고 질문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강박장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박장애를 평가하는 자기보고 질문지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박장애 평가도구는 임상장면에서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 한국판 MOC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Hodgson과 Rachman(1977)이 개발한 Maudsley 강박행동 질문지(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MOCI)는 강박 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 질문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질문지 중 하나이다(Emmelkamp, 1982; Turner & Beidel, 1988; Kyrios, Bhar, & Wade, 1996). MOCI는 문항 진술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는, 2점 척도 형식의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강박적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거나 강박 증상의 전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서 제작된 게 아니고, 관찰가능한 주요 강박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Hodgson & Rachman, 1977). 따라서 이 질문지는 주요 강박 증상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하려는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전체 점수 이외에 확인(checking), 청결(cleaning), 의심(doubting), 지체(slowness)의 4개 하위척도 점수들이 산출된다.

MOCI는 강박증 환자들과 비강박적 기타 신경증 환자들을 잘 변별해 주는 30문항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변별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예/아니오' 형식의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시와 채점이 간편하고, 가장 대표적인 강박 행동 유형을 측정하는 확인과 청결 하위척도에 대해서 많은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과 청결 유형을 평가하는 데 신뢰롭고 타당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Likert 척도 형식이 아니고 이분법적 반응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덜 예민하다. 강박 장애의 만성적 성질을 고려할 때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2점 척도는 증상 완화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다. 또 모든 강박 증상 유형(예를 들면, 수집 행동, 침투적 사고와 반추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의심과 지체 하위척도의 타당도 및 유용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또 다른 단점이 될 수 있다(Emmelkamp, 1982; Jenike, Baer, &

Minichiello, 1990; Turner & Beidel, 1988).

Hodgson과 Rachman(1977)은, 100명의 강박증 환자들의 반응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주요 유형(확인, 청결 유형)과 두 개의 부가적 유형(의심, 지체 유형)을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서 반추(ruminating) 요인이 나타났으나 단지 두 문항만이 이 요인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 요인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MOCI는 전체 점수와 함께 확인, 청결, 의심, 지체의 4개 하위척도 점수들이 산출된다.

Rachman과 Hodgson(1980)의 강박 행동에 대한 일반 이론에 따르자면, 다양한 유형의 강박 증상들은 학습된 정상 행동의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강박 행동 유형은 정상인의 반응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Rachman과 Hodgson(1980)은 50명의 신경증 환자들과 50명의 야간 학교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확인, 청결, 그리고 의심의 세 요인이 나타났는데, 각 요인들은 강박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의 해당 요인과 유사한 내용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체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Sanavio와 Vidotto(1985)는 이태리 정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태리판 MOCI를 개발하고, 868명의 대학생의 반응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확인', '청결', '의심 및 반추(doubting and ruminating)'의 세 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역시 지체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Rachman과 Hodgson(1980)의 요인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이 두 연구들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Rachman과 Hodgson(1980)에서 제 5요인(반추 요인, 문항수가 2개밖에 되지 않아 기각된 요인임)에 해당되었던 2번과 8번 문항(불쾌한 침투적 사고의 발생을 기술한 문항들)이 '의심 및 반추' 요인에 포함되었다. 둘째, Sanavio와 Vidotto(1985)에서는 자신과 부모의 업적 하고도 경직된 성격 특성과 관련된 문항들이 어느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MOCI와 함께 강박장애 평가 질문지로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Leyton 강박 질문지(Leyton Obsessional Inventory: LOI)를 382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정상인들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결과 깔끔함(clean and tidy), 불완전감(feeling of incompleteness), 확인과 반복(checking and repetition)의 세 요인이 나타났다(Cooper and Kelleher, 1973). 이들 각각의 요인은 MOCI의 청결, 의심, 확인의 요인과 내용상 대체로 일치하는데, 서로 다른 두 질문지에서 얻은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LOI에서도 지체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 청결, 의심 요인은 정상인과 환자들의 강박 행동의 주요 요인인 반면, 지체 요인은 임상적으로 분명한 강박증 환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한국판 MOCI가 조대경(1985)에 의해 번안되어,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이민규, 1991 등). 그러나 아쉽게도 조대경(1985)과 후속 연구들에서는 MOCI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채 Hodgson과 Rachman(1977)의 네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대경의 MOCI 한국판을 원문 그대로 사용하되, 675명의 대학생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주성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정상 대학생에서의 MOCI의 요인 구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MOCI의 심리측정적 속성과 내용적 속성을 더 자세히 밝히고, 우리 나라 문화권에서의 강박 행동 증상의 구조를 확인하여 다른 문화권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 정상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지체 요인이 우리 나라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지를 반복검증해 봄으로써, 정상인의 강박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연구 방법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675명의 대학생이었다. 이 중에서 남자는 325명, 여자는 336명,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14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1.9세(표준편차는 3.3세)였다.

측정도구

Maudsley 강박행동 질문지(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 Hodgson과 Rachman(1977)에 의해 주요 강박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위형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대경(1985)이 번안한 한국판 MOCI를 새로운 번안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MOCI는 원래 목록형 반응 양식을 통제하기 위하여 30문항 중 15개의 문항들은 반대 방향으로 채점되도록 제작되었는데, 조대경(1985)은 한국판 MOCI를 개발하면서 30문항 모두 긍정 방향으로 채점되도록 문항들을 번안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문항분석

30문항 각각에 대해서 문항-전체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계수가 0.20이하인 문항이 6개나 포함되어 있었다. 3, 4, 7, 11, 14, 19번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각각 0.20, 0.18, 0.01, 0.13, 0.17, 0.13으로 매우 낮았다.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7번 문항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여도 이 6개 문항들의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여전히 0.20이하의 값을 보였다. 이 6개 문항들은 모두 Sanavio와 Vidotto(1985)의 주성분분석 결과에서 '확인', '청결', '의심 및 반복'의 어느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항들이었다. 나머지 24개 문항들의 문항-전체 상관계수는 모두 0.25 이상이었다.

3, 7번의 양심과 정직성, 11번의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된 문항은 강박 증상을 측정하기보다는 각각

성격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으며, 14번의 수자에 대한 마술적 사고와 관련된 문항은 강박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이지만 어느 하위 유형에 특징적인 증상인지 뚜렷하지 않은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모두 선행 주성분분석 연구들에서 특정 요인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는 경우 그 요인의 내용적 순수성을 흐리는 문항들이었다. MOCI는 관찰 가능한 주요 강박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질문지이지만, 강박장애 환자와 기타 신경증 환자들을 잘 변별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검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박 증상이 아니라 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이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강박 증상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 그리고 강박장애의 어느 특정 하위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증상들은 주요 강박 증상을 측정하는 질문지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차후에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도 판단된다. 즉 이 문항들은, 심리측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낮아서 전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낮추고 요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구성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주요 강박 증상을 재는 이 질문지의 내용적 순수성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체 검사에서 이 문항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전체 점수를 산출할 때 6개 문항들을 포함하여 30문항 전체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MOCI의 요인 구조

675명의 자료에 대해서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고, varimax 방식에 의한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한 이유는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절차를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 피검자/변인 비율은 22.5:1이었다.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8개가 추출되었으나, 고유치의 하락률을 고려한 Scree 검정 결과 4요인 혹은 5요인해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제 5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이 2문항에 불과하여(반추 요인, 이는 Hodgson과 Rachman(1977)

의 제 5요인과 일치함) 이 요인을 기각하였다. 4개 요인은 총 변량의 34.2%를 설명하였다(요인별로 각각 16.7%, 6.9%, 5.8%, 4.6%).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요인 부하량이 0.30 이상인 것만을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제 1요인은 6문항 중 5문항이 명백하게 반복적인 확인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확인(checking)’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비누와 소독약을 더 많이 쓰고 세수와 옷 정돈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등 청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이 오염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르는 강박적인 청결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들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요인을 ‘깔끔함(tidiness)’이라고 이름하였다. 제 3요인은 사소한 일상사나 세부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일을 주의깊게 수행하고 난 후에도 정확히 완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절차에 집착하거나 일을 반복 수행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이 요인에 대하여 ‘실수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takes)’ 혹은 ‘꼼꼼함(meticulousness)’이라는 명칭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Hodgson과 Rachman(1977)의 명칭을 따라 ‘의심(doubting)’ 요인이라고 이름하였다. 제 4요인은 세균이나 더러운 것에 오염되거나 질병에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염에 대한 두려움(fear of contamination) 요인’ 혹은 간단히 줄여서 ‘오염(contamination)’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명칭과 해당 문항, 요인 부하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어느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communality를 기입하였다.

이러한 주성분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보이나, 몇 가지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판 MOCI의 요인구조와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MOCI의 요인구조를 비교하면서, 한국판 MOCI의 요인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Hodgson과 Rachman(1977)이 강박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성분분석에서는 지체 요인이

표 1. 한국판 MOCI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
〈요인 1 : 확인(checking)〉		
6. 어떤 일(가령 가스렌지, 수도꼭지, 방문 자물쇠 잠그는 것 등)을 몇 번씩 확인하곤 한다.		.67
15. 편지를 부치기 전에 쓴 것을 몇 번씩 확인한다.		.60
20. 나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복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59
22.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이상 확인하는 편이다.		.64
28. 일들을 반복해서 확인하느라고 매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51
30. 어떤 일을 매우 주의깊게 했어도 그것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34
〈요인 2 : 깔끔함(tidiness)〉		
1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누를 더 많이 쓰는 편이다.		.65
16. 외출하려고 옷을 입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46
17. 나는 청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		.59
26. 아침에 세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69
27. 나는 소독약을 많이 쓰는 편이다.		.44
29. 저녁에 옷을 건다거나 개어 놓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이다.		.55
〈요인 3 : 의심(doubting)〉		
10. 내가 하는 단순한 일상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41
12. 나는 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내 일에 대해서는 환히 알고 있는 편이다.		.57
18. 내가 갖고 있는 주된 문제점 중 하나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42
23. 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따르려고 한다.		.56
25.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세어보는 버릇이 있다.		.43
30. 어떤 일을 매우 주의깊게 했어도 그것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31
〈요인 4 : 오염에 대한 두려움(fear of contamination)〉		
1. 병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중전화의 사용을 꺼린다.		.64
5. 동물을 쓰다듬고 나서는 감염되지 않을까 하고 매우 걱정한다.		.66
21. 나는 병균이나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편이다.		.55
24. 돈을 만지고 난 다음에는 내 손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54
〈요인 5 : 반추(ruminating)〉		
2. 추잡한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고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기가 어렵다.		.74
8. 내 의지와는 상반되는 불쾌한 생각들이 거의 날마다 떠올라 기분이 상한다.		.75
〈어느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항〉		Communality
3.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정직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0
4. 매사를 제시간에 끝낼 수 없어 일이 늦어진다.		.25
7. 나는 매우 양심적이다.		.44
9. 우연히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치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21
11.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나를 매우 엄격하게 키우셨다.		.20
14. 어떤 숫자들은 매우 불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19. 매우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주저하게 된다.		.07

나타났는데, 이 요인이 정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들(Hodgson & Rachman, 1980; Sanavio & Vidotto, 1985)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체 요인은 정상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Hodgson과 Rachman(1977)의 지체 척도에 대해 내적 합치도를 구해본 결과, 강박증 환자들에서는 알

파괴수가 0.7이었으나, 이후 연구들에서 기타 신경증 환자들에서는 0.0, 대학생들에서는 0.3이었고(Hodgson & Rachman, 1980), 이태리 대학생들에서는 0.44이었는데(Sanavio & Vidotto, 1985), 본 연구에서도 알파계수가 0.49에 불과하였다. 이 요인이 Hodgson과 Rachman(1977)에서처럼 임상적으로 분명한 강박증 환자들에게서 과연 나타나는지는 추후 반복검증을 요한다.

둘째,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청결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깔끔함과 오염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연구 3에서 보겠지만, MOCI의 깔끔함 요인보다는 오염 요인이 PI의 오염 요인과 유의미하게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MOCI의 깔끔함 요인은, 오염에 대한 두려움에 따르는 청결 강박행동(cleaning compulsion)을 측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청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강박장애의 대표적 하위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청결 유형을 더 잘 측정하는 것은 오염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연구 3으로 미루도록 한다.

셋째,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확인, 청결, 의심 요인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 오염, 의심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 세 유형이 강박장애의 안정된 하위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Hodgson과 Rachman(1977)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추 요인이 제 5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요인에 단지 두 문항만이 해당되어 이 요인을 기각하였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2번과 8번 문항은 Hodgson과 Rachman(1977)에서는 확인 요인과 지체 요인에 포함시켰고, Rachman과 Hodgson(1980)에서는 확인 요인에 해당되었으며, Sanavio와 Vidotto(1985)에서는 의심과 반추 요인에 해당되는 등, 주성분분석시 요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항들이었다. 반추 요인은 침투적 사고와 이에 대한 내현적 사고 통제 전략을 주 증상으로 하는 순수 강박 사고 유형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MOCI에서는 이 요인에 단지 두 문항만이 포함되어서 이 하위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 MOCI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Sanavio(1988)에 의해 개발된 Padua 강박질문지는 이 하위 유형을 포괄하고 있고, 연구 2에서 개발한 한국판 Padua 강박질문지의 주성분분석에서도 이 하위유형이 확인되었다. 연구 3에서 보겠지만, 한국판 PI의 이 하위유형은 MOCI의 어떤 하위유형과도 높은 상관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비교적 독립적인 강박장애의 한 하위유형임이 밝혀졌다.

다섯째, 강박장애와 관련된 성격적 특성, 발달적 특성, 그리고 강박 장애의 특정 유형에 속하지 않는 증상을 기술한 문항들이, 앞서 언급했듯이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주성분분석시 Sanavio와 Vidotto(1985)에서처럼 어떤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판 MOCI의 기준 자료

MOCI 전체점수 및 4요인 각각에서의 점수를 남녀 간에 비교하였다. 전체점수 및 의심, 깔끔함 요인 점수에서는 남녀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확인 요인 점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t=1.78$, $df=660$, $p=.061$), 오염 요인 점수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나($t=-1.74$, $df=660$, $p=.068$)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함께 모아서, MOCI 전체점수 및 각 요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3에 MOCI 전체점수의 누가 빈도 및 백분율을 일부 자료만 제시하였다.

표 2. MOCI 전체점수 및 각 요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질문지	N	Min	Max	Mean	SD
MOCI	675	30	54	39.4	5.0
확인	675	6	12	8.6	1.8
깔끔함	675	6	12	7.2	1.4
의심	675	6	12	8.3	1.8
오염	675	4	8	4.7	1.0

표 3. MOCI 전체점수의 누가 빈도 및 백분율

전체점수	누가 빈도	누가 백분율
33	79	11.7
35	176	26.1
37	268	39.7
39	363	53.8
41	456	67.6
43	523	77.5
46	608	90.1
54	675	100.0

신뢰도

내적 합치도. 전체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알파계수는 0.80이었다. 이 수치는 높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낮은 6개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알파계수는 0.82였다. Sanavio와 Vidotto(1985)에서는 알파계수가 0.77이었다. 확인, 깔끔함, 의심, 오염 요인에 대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각 0.69, 0.64, 0.67, 0.60이었다. Sanavio와 Vidotto(1985)에서는 확인 요인에 대하여 0.68, 청결 요인에 대하여 0.58, 의심과 반추 요인에 대하여 0.67의 내적 합치도계수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4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주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점수간의 상관인 0.71이었다. 조대경(1985)의 연구에서는 1주일 간격 검사-재검사 전체점수간의 상관인 0.75였다.

MOCI 요인간 상관계수

MOCI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들간에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들간에는 서로 .26에서 .39까지의 낮은 상관을 보인 데 반해서, 확인 요인과 의심 요인 간에는 .65의 상관을 보여서 이 두 요인이 과연 독립적인 요인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확인 요인

과 의심 요인간의 체계적인 관련성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Hodgson과 Rachman(1977)은, 강박적 의심(obsessional doubt)이란 강박적 의례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내가 불을 제대로 켜나' '내가 수첩에 약속시간을 제대로 적었나' '손이 깨끗이 씻겼을까' 등) 강박장애의 한 증상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강박적 의심이 과연 강박장애의 독립적인 한 증상 유형인지, 아니면 강박 증상 기저의 성격 변인 혹은 인지적 변인인지는 깊은 숙고와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MOCI의 의심 요인은 사소한 것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을 반복 수행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 꼼꼼함, 우유부단성, 완벽주의 등과 관련된 성격 요인으로 보인다. 의심은 일차적으로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 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확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강박 행동에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심은 일차적으로 확인 행동을 이끄는 성격 변인이며, 또한 강박행동이 심화하여 반복적인 강박행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성격 변인이다. 즉 의심은 한편으로 모든 강박장애 기저의 핵심적인 성격 변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특히 확인 유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격 변인이라는 것이다. 강박적 의심이란 단지 의심이라는 성격변인의 심화이지, 강박 장애의 독립적인 하위유형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 의심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느 정도의 낮은 상관을 보인 반면 특히 확인 요인과는 .65라는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Tallis와 de Silva(1992)는 MOCI의 의심 척도는 강박 증상보다는 성격 특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걱정(worry)이라는 현상 또한 부분적으로 의심이라는 성격 특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다.

표 4. MOCI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계수

	확인	깔끔함	의심	오염	전체
확인	1.00	.32***	.65***	.26***	.76***
깔끔함		1.00	.32***	.39***	.64***
의심			1.00	.31***	.80***
오염				1.00	.59***
전체					1.00

*** $p < .001$

연구 2. 한국판 P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MOCI는 심리측정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포괄하는 강박 현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Sanavio, 1988; van Oppen, 1992). Sanavio(1988)는 MOCI를 포함하여 기존의 강박 장애 질문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 낮은 확률의 위험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불쾌한 상상 등”과 같은 강박 현상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기존의 질문지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는 Padua 강박질문지(Padua Inventory: PI)를 개발하였다. PI는 6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다양한 강박적 사고, 충동과 행동에 의해 야기되는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답하게 되어 있다.

Sanavio(1988)는 967명의 비임상 집단의 반응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4요인이 확인되었고, 이 네 요인이 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4요인은 4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데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4개의 하위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심성 활동에 대한 통제 실패(Impaired control over mental activities): 원치 않는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함, 단순한 결정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의심함, 우연한 사고에도 자신의 실수와 책임이 개재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함, 낮은 확률의 위험에 대한 반복적 사고 등. (2) 오염(being contaminated): 오염에 대한 비현실적인 걱정, 더러움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와 관련된 청결 강박행동과 회피 행동을 측정함. (3) 확인 행동(checking behaviors): 문, 창문, 가스 밸브나 수도꼭지, 서류 등

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 행동을 측정함. (4) 충동과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urgences and worries about loss of control over motor behavior): 폭력을 가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남을 해치고 싶은 등의 충동과 반사회적 충동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측정함(Sanavio, 1988, p.172).

첫 번째와 네 번째 척도는 강박 사고 증상을 측정하는 반면, 다른 두 척도는 강박 행동 증상을 측정한다. 4요인 구조는 이후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임상 집단 연구에서 반복검증되었고(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Kyrios, Bhar, & Wade, 1996), 네덜란드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정확성(precision) 요인이 추가되어 5요인 구조를 나타냈다(van Oppen, Hoekstra, & Emmelkamp, 1994).

많은 연구들에서 PI 전체척도와 각 하위척도들이 내적 합치도가 높다(‘충동과 걱정’ 하위척도를 제외하고는 알파계수가 모두 0.80 이상)는 것이 입증되었다(Sanavio, 1988; 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Kyrios, Bhar, & Wade, 1996). 수렴 타당도와 관련해서, PI 전체점수가 SCL-90의 강박 척도와는 0.60-0.70 범위의 상관을 보였고(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MOCI 및 LOI와도 0.65-0.75 범위의 상관을 보였다(Sanavio, 1988; 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Kyrios, Bhar, & Wade, 1996). 변별 타당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예상대로 PI는 외향성 및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지만(Sanavio, 1988; van Oppen, 1992),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과 0.5-0.7 범위의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anavio, 1988; 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강박 증상이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기분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강박 장애가 다른 불안 장애나 기분 장애와 함께 공존하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PI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좋은 심리측정적 속성과 안정된 요인 구조가 확인된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PI를 우리 나라 말로 변안한 한국판 PI를 개발하여, 우리 나라 정상 대학생의 반응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요인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피험자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44명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평균 연령은 21.7세(표준편차는 2.8세,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31세)였고, 이 중에서 남자 128명, 여자 109명,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7명이었다.

측정도구

Padua 강박질문지(Padua Inventory) : 강박 사고나 충동, 강박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navio(1988)가 개발한 60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한국판 PI는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고, 임상심리학 전공의 석사 1인과 박사 1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한국판 PI의 요인 구조

244명의 자료에 대해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varimax 방식에 의한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한 이유는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절차를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 피검자/변인 비율은 4.1:1이었다.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12개가 추출되었으나, 고유치의 하락률을 고려한 Scree 검증 결과 4요인해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4개

요인은 총 변량의 49.2%를 설명하였다(요인마다 각각 33.3%, 6.8%, 5.2%, 3.9%). 요인 부하량이 0.40 이상인 문항을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각 요인의 명칭,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요인 부하량은 표 5와 같다. 어느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communality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성분분석 결과는 요인의 구조와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에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Sanavio, 1988; 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Kyrios, Bhar, & Wade, 1996). 따라서 PI는 그 요인 구조가 안정적인 질문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명칭은 줄여서 '심성통제실패(impaired mental control)', '확인', '충동', '오염' 요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국판 PI의 기준 자료

PI 전체점수 및 4요인 각각에서의 점수를 남녀간에 비교하였다. 전체점수 및 심성통제 실패, 충동 요인점수에서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 점수들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남녀 각각에 대해서 PI 전체점수 및 각 요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7에 남녀 각각에 대해서 PI 전체점수의 누가 백분율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신뢰도

내적 합치도. 전체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알파계수는 0.96으로서 매우 만족스런 수준을 보였다. 심성통제실패, 확인, 충동, 오염 요인에 대하여 알파계수는 각각 0.95, 0.91, 0.89, 0.88로서 역시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또한 문항분석을 위해 각 문항에 대해 문항-전체 상관계수를 구하였는데, 60문항 모두 0.30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PI는 각 문항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신뢰로운 척도

임이 시사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4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주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체점수간의 상관이 0.86으로 시간에 걸친 안정성을

보였다. 심성통제실패, 확인, 충동, 오염 요인에 대하여도 2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각각 0.85, 0.79, 0.85, 0.83으로 나타나서, PI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표 5. 한국판 PI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 심성 활동에 대한 통제 실패(Impaired control over mental activities)〉	요인부하
26.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63
27. 이미 어떤 일을 했음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58
28. 특히 나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같이 느껴진다.	.64
29. 어떤 일을 신중하게 해낸 뒤에도, 그것을 엉망으로 했거나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는 느낌이 여전히 든다.	.61
30. 어떤 일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붙잡고 있어서 때때로 일이 늦어지곤 한다.	.61
31.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문젯거리를 찾아낸다.	.64
32.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69
33.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불쾌한 생각이 떠올라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71
34. 외설적이고 추잡한 단어들이 마음속에 떠올라 제거하기 힘들다.	.60
35. 머리 속에서 내 생각이 계속 나뉘대로 진행되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68
36. 방심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해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상상하곤 한다.	.63
37.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걱정한다.	.71
39. 별 이유도 없이 종종, 나 자신을 해쳤거나 어떤 병에 걸렸을 지도 모른다고 한 동안 걱정하곤 한다.	.57
42.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생각에 앞으로 되돌아가서 그 부분을 적어도 두세 번씩 다시 읽어야 한다.	.53
43.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56
44. 어떤 생각이나 의심이 떠오르면, 모든 관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	.53
45. 어떤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난처한 일을 저지르까봐 두렵다.	.62
52. 때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61
60. 병균과 질병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 내곤 한다.	.47
〈요인 2 : 확인 행동(checking behaviors)〉	
14. 옷을 입거나 벗거나 또는 씻을 때 특정 순서를 따라야 한다.	.55
15. 잠들기 전에 어떤 일을 정해진 순서로 해야 한다.	.55
16. 잠들기 전에 내 옷을 특정한 방식으로 걸어놓거나 개어놓아야 한다.	.56
17. 나는 별 이유 없이 어떤 숫자만큼 반복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	.53
18. 일이 적절히 됐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67
19. 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일을 계속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69
20. 가스나 수도꼭지, 전등 스위치 등을 끄고 난 후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70
21. 문, 창문, 서랍 등이 적절히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62
22. 올바르게 기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식, 서류, 수표 등의 세부 사항을 계속 확인한다.	.70
23. 성냥이나 담배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되돌아보곤 한다.	.70
24. 돈을 다룰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세고 또 센다.	.57
25. 편지 내용을 주의 깊게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부친다.	.52

〈다음 면에 계속〉

표 5. 계속

〈요인 3 : 충동과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urges and worries about loss of control over motor behavior)〉		요인부하
46. 다리나 매우 높은 건물의 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몸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63	
47. 간혹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내던지는 생각을 한다.	.68	
48. 어떤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65	
49. 운전할 때, 사람이나 물건을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70	
50. 흥기를 보면 흥분을 느끼고 난폭한 생각을 하게 된다.	.67	
52. 때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43	
53. 때로 별 이유 없이 물건을 부수거나 손상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63	
54. 때로 내게 별 필요도 없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72	
55. 때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고 싶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곤 한다.	.72	
56. 때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이나 동물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71	
〈요인 4 : 오염(being contaminated)〉		
1. 돈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진다고 느낀다.	.55	
2. 조금이라도 땀, 침, 오줌과 같은 신체 분비물이 닿으면 옷이 더러워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66	
3. 낯선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다시 만지기가 어렵다.	.68	
4. 쓰레기나 더러운 물건을 만지기가 어렵다.	.64	
5. 질병이나 오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꺼려한다.	.71	
6. 전염이나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공 전화의 사용을 꺼려한다.	.70	
7. 나는 필요 이상 자주 오랫동안 손을 씻는다.	.64	
8. 더럽거나 오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씻어야 할 때가 있다.	.66	
9. 오염됐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만지면 즉시 씻어야 한다.	.63	
10. 동물과 닿게 되면 더러워진 것 같아 즉시 씻거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58	
〈어느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은 문항〉		communality
11. 의심이나 걱정이 맘에 떠오르면, 나를 안심시켜 주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28	
12. 말을 할 때 똑같은 단어나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곤 한다.	.35	
13. 남들이 한 말을 처음에 바로 이해해도, 다시 되물어서 남들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8	
38. 계산적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30	
40. 때로 별 이유 없이 물건들을 세곤 한다.	.36	
41. 전혀 중요치 않은 숫자를 기억해야만 할 것같이 느낀다.	.40	
51. 칼, 단도 등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을 보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39	
57.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걸어야 할 것같이 느낀다	.38	
58. 어떨 때는 나중에 탈이 날지라도 과식하고 싶은 충동이 인다.	.21	
59. 자살이나 범죄 뉴스에 접하게 되면, 장시간 혼란스러워지고 그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다.	.28	

표 6. PI 전체점수 및 각 요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질문지	Min	Max	전체	남자	여자	t
PI	61	222	111.0(32.1)	115.1(35.4)	104.7(26.8)	2.54*
심성통제	19	93	39.2(13.8)	41.0(15.4)	36.5(11.5)	2.48*
확인	12	46	21.3(7.7)	21.9(8.1)	20.2(7.1)	1.70
충동	10	41	15.8(6.4)	17.5(7.4)	13.6(4.2)	4.86***
오염	10	43	19.8(6.5)	19.4(6.4)	19.9(6.7)	- .50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01$, * $p < .05$

표 7. PI 전체점수의 누가 백분율

남 자		여 자	
전체점수	누가 백분율	전체점수	누가 백분율
77	9.4	74	9.2
85	19.5	81	19.3
91	31.3	88	30.3
98	39.8	92	38.5
107	50.0	99	48.6
116	60.2	105	60.6
121	70.3	114	69.7
140	79.7	129	79.8
169	89.8	147	89.9
222	100.0	193	100.0

PI 요인간의 관계

PI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들간에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확인, 충동, 오염 요인들간에는 서로 0.31에서 0.49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여 이 세 요인이 비교적 독립적인 하위유형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반면,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PI 전체점수와도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른 하위요인들과 0.51에서 0.69의 상관을 보였고 특히 확인 요인과는 0.69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성통제실패 요인이 강박장애의 하나의 독립적인 하위유형이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확인 행동과 체계적으로 관련된 인지 요인 혹은 성격 요인으로서 확인 행동의 인지적 기초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시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강박장애 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지적 요인일 가능성

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성통제실패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PI의 다른 하위요인들간의 부분상관을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심성통제실패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 확인, 충동, 오염 요인들간의 관계는 -0.05에서 0.22의 매우 낮은 상관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강박장애의 모든 하위유형에 기여하는, 강박장애에 일반적인 요인(OCD-general factor)일 수 있음이 강하게 시사되었다.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환경과 자신의 생각을 실수없

표 8. PI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계수

	심성통제	확인	충동	오염	전체
심성통제	1.00	.69***	.65***	.51***	.94***
확인		1.00***	.42***	.49***	.82***
충동			1.00	.31***	.72***
오염				1.00	.68***
전체					1.00

*** $p < .001$

표 9. 심성통제실패 요인을 통제한 후의 PI 하위요인들간의 부분상관계수

	확인	충동	오염	전체
확인	1.00	-.05	.22***	.66***
충동		1.00	-.03	.43***
오염			1.00	.66***
전체				1.00

*** $p < .001$

이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노력(26, 28, 31, 42, 43, 44번 문항), 통제 노력의 결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27, 29, 36, 37번 문항), 과도한 통제 노력에 뒤따르는 결과적인 통제의 실패(32, 33, 35번 문항)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인 행동이란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통제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면, 환경에 대한 과도한 통제 노력 성향을 측정하는 PI의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확인 행동의 직접적인 인지적 혹은 성격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성향으로서의 심성통제 실패 요인은, 확인 행동, 청결 행동, 반사회적 충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고통제전략 등의 강박행동에 적용될 때 그 강박행동의 반복과 심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구 1에서 MOCI의 의심 요인을 해석할 때 했던 논의와 유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MOCI의 의심 요인과 PI의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강박 증상의 한 독립적인 유형을 측정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확인 유형의 직접적인 인지적 기초(checking-specific cognitive factor)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강박행동을 심화시키는 강박장애의 일반적인 인지적 요인(OCD-general cognitive factor)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3. MOCI와 PI의 타당도

연구 1과 연구 2에서 한국판 MOCI와 PI를 개발하고, MOCI와 PI 각각의 요인구조와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두 질문지의 타당도 연구를 일부 수행하였다. 연구 3에서는 MOCI와 PI 간의 관계 및 불안과 걱정을 측정하는 다른 질문지들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두 질문지의 타당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피험자

서울과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02명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평균 연령은 22.9세(표준편차는 3.3세)였고, 이 중에서 남자 29명, 여자 70명,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었다.

측정도구

(1) MOCI : 연구 1과 같음.

(2) PI : 연구 2와 같음.

(3) Penn State 걱정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 Meyer, Miller, Metzger와 Borkovec(1990)이 걱정 특질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척도로서, 5점 척도 형식의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 결과 이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가 높으며,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과 민병배(1998)에 의해 한국판으로 번안되었으며 알파계수는 .92로 보고되었다.

(4) 불안민감성 검사(Anxiety Sensitivity Inventory: ASI) : 공황장애 환자들의 특징인 '공포에 대한 공포' 성향, 즉 불안민감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Reiss, Peterson, Gursky와 McNally(198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호택, 박현순 및 권석만(1995)에 의해 한국판으로 번안되었다.

(5) 대인관계 불안척도(Interaction Anxiety Inventory: IAS) : Leary(1983)가 사회적 교류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불안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남재(1995)에 의해 한국판으로 번안되었으며 내적 합치도는 .88로 보고되었다.

(6)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행

동적 증상들을 포함하는 21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각 문항은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는 BDI 수정판(Beck, 1978)을 이영호(1991)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7)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불안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개발한 척도로서, 4점 척도 형식의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Kwon, 1992)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PI 요인과 MOCI 요인간의 관계

PI 각 요인들과 MOCI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질문지의 각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PI 전체점수와 MOCI 전체점수 간의 상관이 0.65로 나타나서 두 질문지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수렴타당도를 보였는데, 이는 두 질문지를 비교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Sanavio, 1988; Sternberg & Burns, 1990; van Oppen, 1992; Kyrios, Bhar, & Wade, 1996).

PI의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MOCI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의심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고, PI의

확인 요인은 MOCI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확인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PI의 오염 요인이 MOCI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오염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PI와 MOCI의 각 하위 요인들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PI의 충동 요인은 MOCI 전체점수와 0.30의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MOCI의 각 하위요인들과도 가장 낮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MOCI의 각 요인들과는 비교적 독립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I는 MOCI와는 달리 ‘반사회적 충동의 침투와 이에 대한 통제 책략’을 위주로 하는 강박장애의 증상 유형을 부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측정하는 강박증상의 범위가 MOCI보다 더 포괄적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판 MOCI의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깔끔함’ 요인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표 10에서 보듯이, MOCI의 깔끔함 요인은 PI의 오염 요인과 0.41의 상관을 보인 데 비해 MOCI의 오염 요인은 PI의 오염 요인과 0.61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MOCI의 깔끔함 요인은 PI의 총점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MOCI의 깔끔함 요인은, 오염 및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강박적 청결행동을 측정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청결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MOCI에서 깔끔함 요인은 강박 장애의 하위유형으로서의 청결 유형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요인으로 보이며, 오염 요인이 강박장애의 청결 유형을 측정하기에 더 적합한

표 10. PI 요인과 MOCI 요인간의 상관계수

PI \ MOCI	확인	깔끔함	의심	오염	MOCI 총점
심성통제	.60***	.26**	.63***	.40***	.61***
확인	.62***	.37***	.57***	.46***	.61***
충동	.27**	.09	.32**	.36***	.30**
오염	.45***	.41***	.39***	.61***	.55***
PI 총점	.63***	.33***	.62***	.53***	.65***

*** $p < .001$, ** $p < .01$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MOCI의 의심 요인, 확인 요인, PI의 심성통제실패 요인, 확인 요인이 서로간에 0.57에서 0.63의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요인들간에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도 기술했듯이, 의심 요인과 심성통제실패 요인은 확인 강박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시사되었다.

불안과 우울을 측정하는 다른 질문지들과의 관계

PI와 MOCI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안이나 우울을 측정하는 다른 질문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시한 질문지들간의 상관계수가 표 11에 나와 있다. 먼저 PI는 MOCI와 0.65의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이나 우울을 측정하는 다른 질문지들과도 0.54에서 0.77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불안 및 우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여러 유형의 불안 장애와 우울장애의 공존율이 높기 때문에, 자기보고 측정치들간의 높은 상관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PI의 경우, 불안 민감성과 일반적인 불안 상태를 반영하는 ASI 및 BAI와의 상관이 각각 0.77과 0.75로서 MOCI와의 상관보다 더 높은 것은 PI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PI는 MOCI와의 상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렴타당도를 보였지만, 변별타당도의 측면에서는 타당도가 부족함을 드러냈는데, 특히 불안민감성 및 일반적인 불안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질문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MOCI는 불안 혹은 우울을 측정하는 다른 질문지들과 0.35에서 0.48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PI에 비해 더 좋은 변별타당도를 보였다. MOCI는 문항 선정 과정에서 강박증 환자와 비강박적 기타 신경증 환자를 잘 변별해 주는 문항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강박 질문지들에 비해 변별타당도가 더 높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체 논의

본 연구는 강박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udsley 강박행동질문지(MOCI)와 Padua 강박질문지(PI)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이 두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밝힘으로써 두 질문지를 서로 비교해 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울러 우리 나라 대학생 집단에서의 규준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임상 장면에서 혹은 강박장애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OCI는 알파계수가 .80으로서 내적합치도가 비교적 낮고, 문항-총점 상관이 낮은 문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1로서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확인, 깔끔함, 의

표 11. 질문지들간의 상관계수

	PI	MOCI	PSWQ	ASI	IAS	BDI	BAI
PI	1.00	.65***	.54***	.77***	.60***	.57***	.75***
MOCI		1.00	.48***	.47***	.35***	.37***	.46***
PSWQ			1.00	.43***	.50***	.47***	.47***
ASI				1.00	.61***	.53***	.72***
IAS					1.00	.50***	.50***
BDI						1.00	.73***
BAI							1.00

*** $p < .001$

심, 오염의 4요인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인 구조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적 양상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도 서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MOCI가 문화권과 집단에 따라 요인 구조가 불안정한 질문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MOCI의 요인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강박증 환자들에게서 확인된 지체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청결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깔끔함과 오염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는데, 오염 요인이 강박장애의 청결 하위유형을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확인, 오염(선행 연구들에서는 청결), 의심의 세 요인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PI는 알파계수가 .96으로 내적합치도가 매우 높고 60문항 모두 문항-총점 상관인 .30이상을 보임으로써, 각 문항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질문지임이 밝혀졌다. 물론 PI의 내적합치도가 높은 것은 문항수가 많은 것에도 일부 기인할 것이다. 2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86으로서 시간에 걸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심성통제실패, 확인, 충동, 오염의 4요인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인 구조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요인 구조와, 해당 문항에서의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PI가 문화권과 집단에 걸쳐 요인 구조가 안정된 질문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PI에서는 MOCI에는 상응하는 요인이 없는 '충동' 요인이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순수 강박사고(pure obsessional)' 유형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공격적, 성적, 혹은 신성모독적인 충동이나 사고, 영상이 의식 내에 침투해 들어오면, 개인은 이를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다양한 사고 통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침투적 사고를 통제하려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은 강박 장애의 주요 하위유

형으로서 최근 들어 강박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주된 연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Salkovskis, 1985, 1989; Rachman, 1993, 1997, 1998 등). PI가 최근 들어 강박장애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질문지로 대두된 이유 중 하나는, MOCI를 포함하여 다른 강박 척도들이 측정하지 못하는 '충동'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강박장애에 대해서 '노출과 반응예방(Exposure & Response Prevention: ERP)'이라는 행동적 치료접근이 지배적인 시기에는 강박행동 증상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면, 강박장애에 인지적 혹은 인지행동적 치료접근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강박장애의 인지적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는데, PI는 다른 척도들보다 강박사고 증상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강박척도로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MOCI와 PI의 각 하위척도들간에 상관을 구한 결과, 두 척도의 상응하는 하위척도들간의 상관(의심-심성통제실패, 확인-확인, 오염-오염)이 상응하지 않는 하위척도들간의 상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두 척도의 하위척도들이 수렴/변별 타당도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MOCI는 PI와의 상관이 불안이나 우울을 측정하는 다른 질문지들과의 상관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여서, PI보다 변별타당도가 더 좋은 검사임이 입증되었다.

두 질문지를 통해서 강박사고 유형으로서의 '반사회적 충동' 유형과 강박행동 유형으로서의 '확인' 유형, '오염/청결' 유형이 강박장애의 세 가지 독립적인 하위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MOCI에서 나타난 '의심' 요인과 PI에서 나타난 '심성통제실패' 요인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박장애의 독립적인 하위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들은, 이 요인들이 강박 증상의 한 독립적인 유형을 측정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확인 유형의 직접적인 인지적 요인(checking-specific cognitive factor)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강박행동을 심화시키는 강박장애의 일반적인 인지적 요인(OCD-general cognitive factor)으로서 기능하는 구성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강박적 의심' 혹은 '과도한 통제 노력과 통제의 실패'라는 구성개념은 걱정 현상과 관련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Freeston, Ladouceur, Rheaume, Letarte, Gagnon, & Thibodeau, 1994; Burns, Keortge, Formea, & Sternberger, 1996; Tallis & de Silva, 1992 등). 앞으로 더 세밀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숙고를 통해서, '강박적 의심'의 개념적 성격과 기능을 밝히고 그것이 확인 행동, 걱정, 및 전반적인 강박장애와 개념적, 현상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두 척도를 각기 다른 표본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 척도의 심리적 속성들을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두 척도의 신뢰도와 요인구조의 차이에는 척도 속성의 차이와 함께 표본의 차이가 혼합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3에서 두 척도의 자료가 새로운 동일 표본으로부터 수집되기는 하였지만, 연구 1, 2의 결과를 반복검증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작다는 제한이 따랐다. 차후 다른 표본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이 교차타당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4(1), 73-81.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 (1995). 한국판 공황장애 척도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4(1), 95-110.
- 이민규 (1987). LOI 강박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6, 33-41.
- 이민규 (1991). 강박성향자의 정보처리적 특성: 기억출처의 변별과 인지적 통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대경 (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일 연구: Maudsley 강박행동목록 표준화. *학생연구*, 20, 1, 78-9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PA.
- Burns, G. L., Formea, G. M., Keortge, S., & Sternberger, L. G. (1995). The utilization of nonpatient samples in the study of OCD.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133-144.
- Burns, G. L., Keortge, S. G., Formea, G. M., & Sternberger, L. G. (1996). Revision of the Padua Inventory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tinctions between worry, obsessions, and compul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163-173.
- Cooper, J. E. & Kelleher, M. Y. (1973).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normal subjects. *Psychological Medicine*, 3, 204-208.
- Cooper, J. E. (1970).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Psychological Medicine*, 1, 48-64.
- de Silva, P. & Rachman, S. (1992). *OCD: The facts*. UK: Oxford Univ. Press.
- Emmelkamp, P. M. G. (1982). *Phobic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Plenum.
- Freeston, M. H., Ladouceur, R., Thibodeau, N. & Gagnon, F. (1992). Cognitive intrusions in a nonclinical population. II.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anxious, and compulsive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0, 263-271.
- Freeston, M. H., Ladouceur, R., Rheaume, J., Letarte, H., Gagnon, F., & Thibodeau, N. (1994). Self-report of obsessions and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29-36.
- Gibbs, N. A. (1996). Nonclinical populations in research on OCD :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729-773.
- Goodman, W. K., Price, L. H., Rasmussen, S. A., Mazure, C., Fleishmann, R. L., Hill, C. L.,

- Heninger, G. R., & Charney, D. S. (1989). The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Development, use, and reliabil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1006-1011.
- Hodgson, R. J. & Rachman, S. (1977). Obsessional-compulsive complai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389-395.
- Jenike, M. A., Baer, L., & Minichiello, W. E. (1990).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Theory and Management*. Chicago: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 Kwon, S-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model of depression*.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 of Queensland.
- Kyrios, M., Bhar, S., & Wade, D. (1996). The assessment of OC phenomena: psychometric and normative data on the Padua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85-95.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87-495.
- Norton, G. R., Cox, B. J., Asmundson, G. J. G., & Maser, J. D. (1995). The growth of research on anxiety disorders during the 1980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9, 75-85.
- Rachman, S. & Hodgson, R. J. (1980). *Obsessions and compulsions*. NJ: Prentice-Hall.
- Rachman, S. (1993). Obsessions, responsibility and gui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149-154.
-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93-802.
- Rachman, S.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385-401.
- Rasmussen, S. A. & Tsuang, M. T. (1986).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history of OC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317-322.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571-583.
- Salkovskis, P. M. (1989).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 677-682.
- Sanavio, E. & Vidotto, G. (1985). The components of the MOCQ.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659-662.
- Sanavio, E. (1988). Obsessions and compulsions: The Padua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169-177.
- Sternberger, L. G. & Burns, G. L. (1990). Obsessions and compulsions: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dua Inventory with an American college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341-345.
- Tallis, F. & de Silva, P. (1992). Worry and obsessional symptoms: A correlation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0, 103-105.
- Turner, S. M. & Beidel, D. C. (1988). *Treating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NY: Pergamon.
- van Oppen, P. (1992). Obsessions and compulsions: Dimensional structure, reliability,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of the Padua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0, 631-637.
- van Oppen, P., Hoekstra, R. J., & Emmelkamp, P. M. G. (1994). The structure of OC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15-23.

원고접수일 1999. 2. 26

수정원고접수일 1999. 5. 31

게재결정일 1999. 6. 8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and Padua Inventory

Byoung-Bae Min, Ho-Taek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translations of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MOCI) and Padua Inventory(PI)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MOCI and the PI were administered to 675 and 244 college students respectively, and their psychometric properties were evaluated. As compared with the MOCI, the PI was found to have higher internal consistency and temporal stability, have more stable factor structure, and include more comprehensive obsessional phenomena. On the contrary, the MOCI was found to have higher discriminant validity than the PI.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the subscales of two measures have good convergent/divergent validity. Finally,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doubting' and 'impaired mental control' subscales were discussed.